

■ 화물차 멈춘 광양항 컨 부두는 지금



화물연대 전남지부가 파업에 돌입한 12일 오전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현재 광양항의 화물 적치율은 30.9%이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하역 불기로 인해 곧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장기화땀 신인도 하락... 생산 중단 될수도

■ 광주·전남 파업 손실은

13일로 예정된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 부분파업이 시작되면서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 전남지부가 12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 수출입 컨테이너를 반출입하는 광양항은 비상이 걸렸다.

12일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와 여수해양항만청 등에 따르면 하루 평균 5천1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 달하는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의 화물 반출입량은 11일 80%선인 4천TEU로 줄어든데 이어 파업이 본격화된 12일 12일 오전 0시부터 이날 정오까지 물동량은 392TEU에 불과했다.

평소 530여대 광양항 게이트를 출입하던 화물차수도 72% 줄어든 46대에 그쳤다.

이처럼 광양항이 막히면서 삼성광주전자·금호타이어 등 광주지역 대기업은 물론 여수산업단지도 일부 생산라인이 멈춰서거나 생산물품을 공장 빈터에 야적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삼성광주전자의 경우 하루 250개(40TEU)의 컨테이너 물량을 광양항과 부산항으로 반출하고 있으나, 12일 하루 반출량의 60%로 줄어들었다.

삼성광주전자 관계자는 "잔업물량이 이미 소진된 상태"라며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 중단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도 하루 80여개(40TEU)의 컨테이너 물량이 광양항 입구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해외고객에 대한 납기 지연, 그에 따른 대외 신인

도 하락은 물론이고 원재료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생산중단 사태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상당수 화물차주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 12일부터 운송거부에 들어가면서 내수와 수출차량 1천500여대의 물량이 운송·선적 지연 등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의 중간재인 에틸렌·프로필렌·부타디엔 등을 생산하는 여수산단의 경우 화물연대의 파업에 따라 중간재 공급이 끊기면서 합성섬유·화학비료·삼총제·필름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한 화학업체 관계자는 "생산제품을 보름 단위로 출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장애는 없으나, 파업이 장기화되면 선적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종태기자 itlee@kwangju.co.kr

8차선 진입로 컨차량 500대 겹겹이

폭풍전야 긴장속 적막감만 ...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 전남지부가 총파업을 선포한 12일 오전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평소 대형 화물차들로 북적였을 광양항 부두 앞 8차선 도로 갖길에는 운행을 중단한 컨테이너 차량 500여대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운전대를 놓은 화물연대 조합원들 사이에는 절박감과 비장함이 감돌았다.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켜보는 물류회사 직원들의 표정도 착잡했다. 양측 모두 이번 파업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모르는 듯한 분위기가 엿보였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화물연대 선전차량 스피커에서는 총파업 출정식을 알리는 구호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광양항의 1일 평균 컨테이너 수송량은 5천100TEU(1TEU=컨테이너 1개). 그러나 이날 부두출입문을 통과하는 컨테이너 차량은 거의 없었다. 부두 내에서만 컨테이너 운반이 가능한 야드 트래커(YT)만 가끔 움직일 뿐이다.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16개도 율스롭

물동량 주말 물러 포화상태 불보듯

된 상황이었다. 부두에는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이 크레인의 상부 70m지점까지 올라서자 광양항이 한눈에 들어왔다.

파업 첫날이어서인지 아직은 비어있는 적치장이 많았다. 현재 광양항 부두에 적치된 컨테이너는 5만8천714TEU로 적치율은 30.9%. 전체 적치량이 19만208TEU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13만1천494TEU(69.1%)분량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물동량의 60% 정도가 금·토·일요일에 물러는 광양항의 특성상 파업이 계속된다면 5~6주 정도면 한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광양항 내 5개 물류업체 중 하나인 동부익스프레스 교체 전 전남지사장은 "적치량이 70% 정도 여유가 있지만 이번 주말에만 적치량 10~20%가 추가로 늘 것 같다"며 "현재 포화상태에 이른 부산항 기항선사들이 광양으로 뱃머리를 돌리고 있는 만큼 광

양항 적치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광양항의 고요함과는 달리 이곳 마린센터 4층에 들어선 '광양항 비상수송위원회'는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느라 분주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과 51군수지원단, 광양경찰서, 광양시청, 철도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수송위원회 사무실에는 연일 울려대는 전화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분위기가 엿보였다.

비상수송위원회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야드 트래커의 운송범위를 부두 내에서 외부까지 확대했다. 또 광양항 내 철도수송장의 이용률을 높이고 군 수송트럭 5대를 지원받겠다는 대책을 세웠다.

하지만 비상수송위원회 한 관계자는 "철도수송장의 1일 최대 수송량이 400TEU에 불과하고, 야드 트래커 84대의 외부운행을 허가한다고 해도

수송량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며 "여기에 야드 트래커 기사들도 파업에 동요하고 있어서 물류대란은 현실이 될 것 같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광양=안현주·김춘호기자 ahj@kwangju.co.kr

“사고 유발 땀 구속”

대검 공안부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 시한을 하루 앞두고 검찰과 경찰, 노동부, 국토해양부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되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차량의 타이어를 펑크내는 행위 등은 구속수사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2일 오전 11시부터 대검 8층 회의실에서 이진한 대검 공안2과장 주재로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 및 민주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 등 노동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현 상황의 배경과 원인, 전망 및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희뉴스

지회별 운송단가 등 놓고 줄다리기

■ 협상 어떻게 되거나

12일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컨테이너 지회 여천산단 분회, 태인지회 순천지회 등이 4개 주요 사업장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 광주에서는 금호타이어지회, 카케리이분회 등이 협상중이다.

그러나 컨테이너 지회는 화주인 광양항 한국컨테이너 부두 관리 공단측과 유가연동제 시행, 운송단가 인상 등을 협의하고 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13일 여수지회 삼남분회가 화주인 삼남석유화학㈜ 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지만 타결전망이 밝지 않다.

화물연대 광주지부 금호타이어 지회도 현재 화주측과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광주·전남 화물연대는 전국운수산업노조의 총파업철회지침이 있을 경우 최종협상안에 도장을 찍고 파업을 푼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전남지부 각 지회들도 화주 측과 운송 단가 인상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장별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최종 합의문의 도장은 전국운수산업노조의 파업 철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찍지않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전국운수산업노조가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한 기한인 오는 21일까지는 총파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자가용 화물차·군용차량 대체 투입

■ 광주시·전남도 대책

광주시와 전남도가 12일 전남 지역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물류현장에 군용 차량과 자가용 화물차를 대체 투입하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광주시는 이날 '국가기반시설보호 상황실'을 편성해 24시간 비상체제로 돌입하는 한편, 물류차질이 빚어지면 자가용 화물자동차 3천413대를 물류현장에 투입키로 했다.이를 위해 자가용 운전자들에게 운전자에게 한시

적으로 유상운송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시는 물류차질을 겪는 기업체가 원할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조업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파업기간 동안 철도수송을 제외한 대부분 화물의 외부반출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80TEU급 열차 2편을 추가 배치하는 등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전남도는 군용 수송 차량 5대를 대체 운송수단으로 물류현장에 투입키로 하는 한편 함안대 화물 이동차량

인 야드트래커의 항만 밖 운송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화물운송 위기 대응 메뉴얼'에 따라 ▲물류시설 보호 조치 ▲비조합 차량 운행에 대한 보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의 장기화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중·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2008 SUMMER 벤쿠버 영어캠프 [광주]

2008 여름방학 국내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캠프 기간: 7월 14일(토) ~ 7월 20일(토) 7일간

● 캠프 장소: 벤쿠버 (캐나다)

● 참가 대상: 초등 3학년 ~ 중 2학년

● 참가 인원: 20명

● 참가 비용: 1,200,000원 (항공료 별도)

● 캠프 내용: 영어 회화, 문화 체험, 스포츠, 여행 등

● 신청 방법: 전화 신청 (02-123-4567)

● 문의처: 벤쿠버 영어캠프 [광주] (02-123-4567)